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년 8월

교육학석사(상업정보교육)학위논문

상업정보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업정보교육 전공

백 형 미

상업정보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 for Improving Efficiency
of Commercial Information Education

2012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업정보교육 전공

백 형 미

상업정보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계 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상업정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2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업정보교육 전공

백 형 미

백형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승 용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청 호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계 원 인

2012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2장 상업정보교육의 목표와 변천과정	5
제1절 상업정보교육의 목표	5
제2절 우리나라 상업정보교육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7
제3장 우리나라 상업 교육의 현황	19
제1절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의 현황	19
제2절 광주·전남지역 상업정보계열 고등학생의 진로	22
제4장 실증분석	27
제1절 상업교육의 문제점 분석	27
제2절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이 분석	47
제3절 개선 방안	52
제 5 장 결 론	60
제1절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60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63
참고 문헌	65
부 록 : 학생용 설문지	67
교사용 설문지	72

<표 목차>

<표 2-1> 제7차 전문 교과 편제	14
<표 2-2> 2007년 개정 상업정보계열 전문 교과 편제	15
<표 2-3> 상업정보계열 기준 학과 편제 개정 내용	16
<표 2-4> 고등학교 단위 배당기준	18
<표 3-1> 고등학교 학교 수의 변화	19
<표 3-2> 고등학교 학생 수의 변화	20
<표 3-3>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	21
<표 3-4> K여자상업고등학교의 진로 현황	22
<표 3-5> 광주 K 여자상업고등학교 취업자 현황(2011년 기준)	23
<표 3-6> S여자상업고등학교의 취업자 현황	24
<표 3-7> S여자상업고등학교의 진학자 현황	24
<표 3-8> 편제학과와 관련 자격증	25
<표 4-1> 상업계 고등학교 지원 동기(학생)	28
<표 4-2> 상업계 고등학교 지원 동기(교사)	29
<표 4-3> 상업계 교육과정과 본인의 적성과의 적합성(학생 응답) ...	29
<표 4-4> 상업교과의 수준과 학생들의 수학능력(교사)	30
<표 4-5> 상업 교과 내용과 수준(학생)	31
<표 4-6> 상업정보 교육과정의 문제점(교사)	31
<표 4-7> 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교사)	32
<표 4-8> 상업정보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학생)	33
<표 4-9> 상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교사)	34

<표 4-10> 상업계 고등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학생)	34
<표 4-11> 선생님과 진로상담 기회의 충분성 여부(학생)	35
<표 4-12> 상담 내용(학생)	36
<표 4-13> 상담 결과에 대한 생각(학생)	36
<표 4-14> 진로상담의 불만족 이유(학생)	37
<표 4-15> 선생님이 생각하는 취업지도의 비중(교사)	37
<표 4-16> 학생 지도 시 중점 부분(교사)	38
<표 4-17> 학생 지도 시 부족한 부분(교사)	39
<표 4-18> 진로지도 시 선생님의 어려운 점(교사)	39
<표 4-19>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학생)	40
<표 4-20> 취업 준비 시 문제점(학생)	41
<표 4-21> 취업 희망 분야(학생)	42
<표 4-22> 희망 직종 취업을 위해 필요한 노력(학생)	42
<표 4-23> 상업계 교육내용의 실무 적합성(학생)	43
<표 4-24> 실무 적합성이 불충분한 이유(학생)	43
<표 4-25> 고졸채용을 위한 개선사항(학생-순위별)	44
<표 4-26> 교사가 생각하는 고졸채용의 개선사항 우선순위(교사)	45
<표 4-27> 바람직한 실습의 중점 부분(교사)	45
<표 4-28>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교사)	46
<표 4-29> 학생들의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중요도(교사, 우선순위)	47
<표 4-30> 교직경력에 따른 상업교육의 전망 수준차이	47
<표 4-31> 교직경력에 따른 수학능력 인지정도	48
<표 4-32> 교직경력에 따른 산업체 수요 대응정도 차이	48

<표 4-33> 교육과정 문제점에 따른 상업교육의 비전 수준차이	49
<표 4-34> 상업정보 교육과정 문제점에 따른 산업체 수요 대응차이	49
<표 4-35> 진학동기에 따른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차이	50
<표 4-36> 진학동기에 따른 교육과정 적합도 차이	51
<표 4-37> 적성 적합도에 따른 대학 진학 희망도 차이	51

<그림 목차>

<그림 1> 상업정보교육의 목표	7
-------------------------	---

ABSTRACT

A Study on the Plan for Improving Efficiency of Commercial Information Education

Hyeong-Mi Baeg

Advisor : Prof. Kay-Won Lee, Ph.D.

Major in Business Informa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Commercial information high schools have contributed to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leading the 1960' industrialization. Lately, Commercial information high schools are searching for the speedy change meeting the age of information adding the word 'information' to the name of schools. However, it is true that persons of talent who can be easily adopted to the change of society are not educated yet because of repeated and high-hande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commercial informati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and to suggest the problems and ways of improvement. Hence,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educational courses and states. Moreover, in this study, it is analyzed what the motive of going on to the next stage of education and aptitude, the course and environment of education, the problems of consulting students' way, the ways of getting jobs are, setting up students in several commercial information high schools in Gwangju and Mokpo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With this analysis, problems and ways of improvement on the commercial information high schools are as follows.

First, Many of the students in the schools are not satisfied with the present learning because most of them go on to the next stage of education without the distinct purpose of themselves and regardless of their wills due to not good school record. For the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reform application standard for new students and to change the schools into specialized schools in which students can concentrate on studying for getting their jobs through boosting the particular objects of commercial information schools.

Second, intention and intellectual level of the students are getting low because of high-leveled text books. Hence, it is required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learning through operating the course of learner-oriented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poor environment of commercial education, which is to secure educational software and instrument keeping pace with the change of generation.

Third, the students have no many chances of consulting their teachers and the consult about their ways is too formal and not substantial because of the negative and passive attitude of students. So as to improve these problems, new ways to the next stage and much information on a job should be offered to the students through understanding individual character of the students, developing positive self-concept and setting the academic and career counseling including respective contents. It is necessary to have counselor's office and professional counselors in the schools through which the students can solve their agony and be counseled about their ways.

Fourth, according to finding on the prepared questionnaire, it is surveyed that the students are in difficulties for no opportunities of field training and poor achievements of qualification. Teachers in charge of classes and related subject should be concerned about achievements of qualification and continue directing the students. As well as, there is a necessity for guaranteeing the opportunities

by which the students can be easily adapted to field training, cultivating talented students who are suitable to developed industry and setting up the system of training talents who are specialized to bright field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현재 한국에서는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고졸자들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진학은 개인의 미래소득 보장과 더 나은 결혼조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에 더하여 고졸자의 성공모델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문제다. 이로써 과거 산업 역군으로 대접받던 고졸 전문기능인들은 학력 인플레이가 심화되면서 오늘날 찬밥 신세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는 지난 10년간 상장사 고졸 출신 임원은 7.2%에서 2.6%로 급감한 것으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또한, 고졸 취업자의 일자리가 열악하여 대졸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다. 임금은 4년제 대졸자의 77.5~79.4% 수준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직종도 주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판매 및 서비스직, 기능공, 단순노무직에 머물러 있으며, 상용직 비중도 전문대졸 이상 72.4%에 비해 47.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력 인플레이에 따라 대학진학률과 인적자본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는 1991년부터 크게 악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를 정점으로 2011년 0.86%까지 하락했다. 최대 42%로 추정되는 대졸 과잉학력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 결과 2009년 이후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과잉학력으로 인한 1인당 기회비용은 1억 2,000만원(국가 전체 기회비용 최대 19조원)에 달한다. 대졸 과잉학력자 42%가 대학진학 대신 취업하여 생산 활동을 할 경우 GDP성장률은 적어도 1.01%이상 추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¹⁾

청년 취업자 중 고졸 이하 비중은 독일 59.5%, 영국 52.2%, 프랑스 47.2%, 한국 42.3%로 대학 진학률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 1999년 21세였던 최종학교 평균졸업

1) 서울경제, '기업에 새 활력... 나는 고졸이다.' 2012.03.12.

연령은 2006년 21.9세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0.1세에서 20.5세로 소폭 늘어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졸업연령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연령도 1999년 24.3세였던 것이 2006년에는 25세로 0.7세 늘었다.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0.1세 늘어 23세인 것과 비교하면 절대연령도 월등히 높다. 취업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나 사회의 교육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교육비 → 지출증가 → 소비위축·노후준비 미흡 → 청년실업 양산'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졸자 일자리의 질 보장과 지속 가능한 종합적인 처방과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고졸 채용을 권장함에 따라 은행권의 텔러 채용이 부활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고졸 채용 바람은 문턱이 높던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과 LG와 포스코 등 대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2년 금융권 최대 규모인 고졸 행원 200명을 신입 행원으로 선발한다고 밝혔고, IBK 기업은행도 2011년 고졸사원 67명을 뽑은 데 이어 2012년 상반기 1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11년 48명을 고졸 사원으로 채용한 산업은행은 2012년 8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삼성은 2012년 처음으로 그룹이 총괄하는 고졸 공채를 실시할 계획으로 같은 해 총 9,000여명의 신입 고졸채용에 나선다.²⁾

이런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공공기관, 대기업 등 각 당사자들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업체에서 정부의 눈치 보기를 하며 정부에 성의를 표하듯 고졸채용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런 당사자들의 속마음을 읽듯 특성화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최근의 고졸 채용 확대가 한때의 바람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러한 정부시책이 근본적인 고졸채용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졸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들도 이런 정부시책에 부정적

2) 조선비즈(<http://biz.chosun.com>) 2012.03.27

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최근 이슈를 배경으로 본 연구자는 근시안적이고 강제적인 정부시책으로의 고졸채용 확대가 아닌 고졸채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고졸채용 증가를 위한 상업계 고등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상업계 고등학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상업계 고등학교는 1960년대 산업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다. 상업계 고등학교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오며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상업고등학교들은 앞 다투어 ‘정보’라는 단어를 학교명에 넣어 정보화시대에 맞게 발 빠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반복적이며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결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낮은 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진학을 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현 상업 교육은 시대적·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흥미·적성은 물론 산업체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상업계 고등학교는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상업계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 문제나 학생들 스스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상업계 고등학교가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취업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 본연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최근의 상업 교육에 관련된 각종 논문들과 관련 서적, 저널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업정보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서비스의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2002~2011)간의 통계자료와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상업 교육의 이론적 배경인 상업 교육의 목표와 성격,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업교육과 관련된 교과변천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상업교육의 현황과 진로실태에 대해 알아보았고 제4장에서는 현 상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상업교육의 미래 지향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상업정보교육의 목표와 변천과정

제1절 상업정보교육의 목표

1. 상업정보교육의 의의와 목적

상업교육이란 산업계에서 생산자로서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³⁾ 글로벌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면서 상업계열 고등학교는 단지 상업분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유통, 경영, 컴퓨터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평생 직업준비 교육기관으로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진로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7)가 설정한 상업정보교육의 목적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난 2007년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교과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상업계열에 대한 명칭 변경 방안에 대해 ‘상업정보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업정보교육의 목표가 사회경제 일반을 이해하고 상업실무 즉, 사무나 판매, 정보처리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면, 상업정보교육의 목적은 이를 위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양준원, 2011).⁴⁾

3) 네이버 지식사전 상업교육이란, (<http://www.naver.com>)

4) 양준원, “우리나라 상업정보계열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1, p.1

2. 상업정보교육의 성격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년)에 의하면,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단지 기능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식기반 사회에서 평생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있다. 나아가 상업정보교육 학생들이 관련 직업분야의 기초 능력을 지니며 미래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 교과는 상업 정보 관련 산업에 종사할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며, 관련 직업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이는 직업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취업 후 지속적으로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의 직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직업 효능감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상업정보교육의 목표

상업정보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기초적 능력과 기본적 태도를 육성하는데 있다. 그리고 개개의 구체적인 능력이나 태도에 있어서는 상업정보교육의 실천의 장이 되는 각 과목의 목표에 합치되어야 한다.⁵⁾

교육과학기술부의 위 제2011-361호 상업정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르면,

첫째, 상업정보 분야의 산업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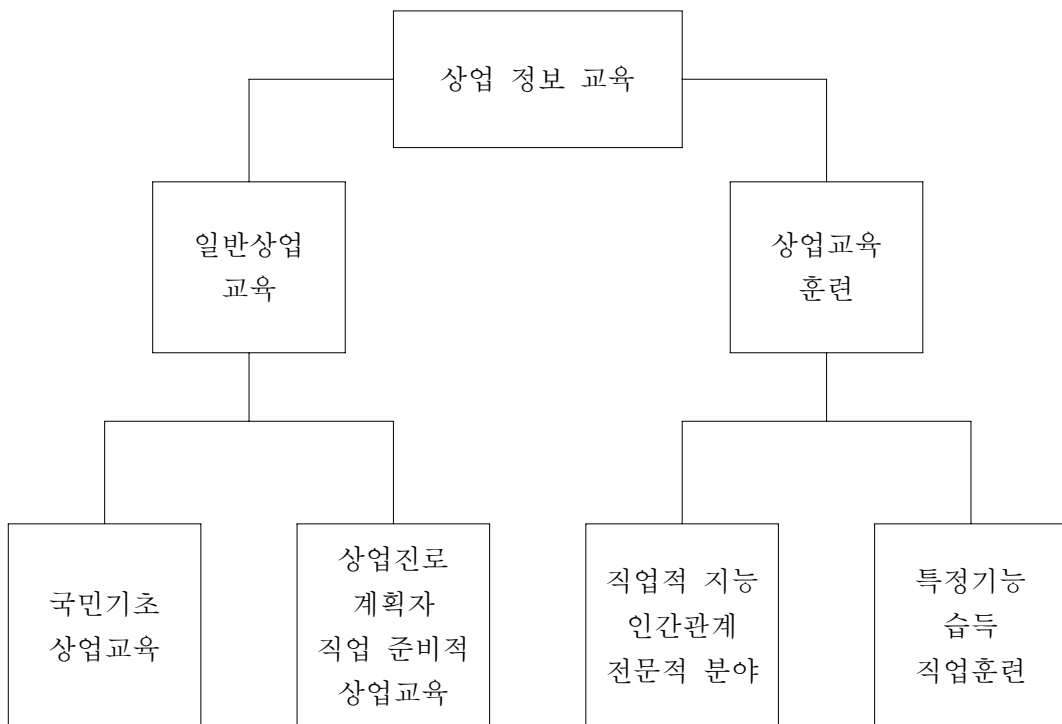
둘째, 상업정보 분야의 직업적 소양을 갖추고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관련 분야의 실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설화란,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현행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p.13-14.

셋째, 상업정보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평생 학습 태도를 길러 지속적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아래 <그림 1>은 상업정보교육의 목표이다.

<그림 1> 상업정보교육의 목표⁶⁾



제2절 우리나라 상업정보교육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수차례 걸쳐 개정되었다. 7차 교육과정까지는 전면 개정 체제이었으나, 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수시

6) 노직수, 안범진, 「상업정보교육론」. 창원대학교출판부, 2009, p.12

부분 개정 체제로 바뀌었다. 교육과정은 개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⁷⁾

- 제1차 교육과정기(1955. 8. ~ 1963. 2.)
- 제2차 교육과정기(1963. 2. ~ 1974. 12.)
- 제3차 교육과정기(1974. 12. ~ 1981. 12.)
- 제4차 교육과정기(1981. 12. ~ 1988. 3.)
- 제5차 교육과정기(1988. 3. ~ 1992. 3.)
- 제6차 교육과정기(1992. 3. ~ 1997. 2.)
- 제7차 교육과정기(1997. 2. ~ 2007. 2.)
-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2007. 2. ~ 2009. 2.)
- 2009년 개정 교육과정기(2009. 2. ~ 현재)

1. 제1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67호, 1958. 6. 5)

실업 고등학교 및 기타 전문 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시간 배당 기준을 표시한 문교부령 제35를 개정 공포한 것이 이 시기의 교육과정으로서 상업개별 교육과정 형태를 최초로 갖춘 것이다.

상업과 단일 학과 편제로 되어 있었고 전문 교과는 12개 과목(상업 경제, 부기, 회계학, 주산, 상업 수학, 상업 연습, 경제 지리, 상업 법규, 무역 등)을 3년간 집중적으로 이수케 하는 획일적 체제였다.⁸⁾

제1차 교육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단선형 학제의 기본 취지를 교육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필수

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8, p.432.

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8, p.434-435에서 재인용.

교과와 선택 교과를 두어 학생의 적성 및 취미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⁹⁾

2. 제2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2호, 1963. 2. 15.)

제2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로 이루어졌다. 첫째, 상업, 경영 관리 및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킨다. 둘째,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상업의 기능과 상업에 있어서의 경영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실업인의 신념과 지식을 갖게 한다. 셋째, 일반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필수 및 선택의 전문 교과 이수 단위 수를 102~120단위로 하여 총 이수 단위를 204~224단위로 정하였다. 필수 교과목으로는 상업대요, 상업 부기, 타자 등 10개 과목을 정하였고, 선택 과목으로는 은행 부기, 공업 부기, 상품학, 기타 등으로 하고 이 중 5과목 이상을 선택하도록 정하였다.¹⁰⁾

3. 제3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286호, 1971. 8. 14.)

이 과정은 흔히들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도 하며, 영어, 수학 등의 보통 과목은 실업계 고교용 도서로 별도 발행하였다. 그리고 전문 교과 수를 20개 과목에서 30개 과목으로 늘리고, 이수 편제표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점에서도 선택 과목의 이수 유형을 각 업무 종사에 필요한 과목을 제시하였다.

교육 목표는 제2차 때의 목표를 3개 항목으로 그대로 제시하되 문구의 조정을 시도하였다. 총 이수 단위 수는 204~222단위이고, 전문 교과목 이수 단위 수는 102

9) 설화란,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현행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p.24에서 재인용.

10) “교육과학기술부, op. cit., p.435.”

~154단위로 정하였으며, 필수 과목으로는 상업대요, 경영관리, 상업 법규, 부기 I 등 9과목으로 하고, 선택 과목으로는 21개 과목을 두었는데, 특기할 사항은 전자 계산 과목들이 선택 과목 중 4개 과목이나 편성되었다는 점이다.¹¹⁾

4. 제4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12. 31.)

실업계와 일반계 교과용 도서를 다시 합본으로 하고, 보통 과목도 일반계와 구분하지 않았다. 종전의 상업과 단일 편제에서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 처리과 등으로 전공 학과를 4개 과로 구분하여 학과별 필수 과목을 정하고, 선택은 학과별 벽을 터서 공통적으로 한 것이 특색이다. 교육 목표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도입하여 하위 개념으로 3개 항을 제시한 것이 특색이다.¹²⁾ (목표는 제5차 목표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 생략함)

5.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3. 31.)

제 4차와 유사하게 상위, 하위 개념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길러 산업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나. 산업 사회 발전에 맞추어 창의성을 발휘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다. 상업 및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신념과 긍지를 지닌 직업인으로서의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총 이수 단위 수는 204~216단위로 축소하였고, 전문 교과 이수 단위 수는 82~

11) "ibid."

12) "ibid., p.436"

122단위로 역시 축소한 것이 특색이다.

각 학과별 공통 필수 과목은 상업 개요, 경영개요,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반이며, 학과별 필수 과목은 상기 4개 과목 외에 3과목을 더하여 7개 과목으로 함으로써 필수 이수를 의무화시켰다.¹³⁾

6.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 2. 28.)

6차 교육과정은 우리의 사회가 국제화, 정보화, 다양화되는 고도 산업사회의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는데 그 목표를 두고 개정이 되었다.¹⁴⁾

제6차에서는 'Business'의 범주를 '상업 및 경영'으로 하여 21세기의 산업 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상업의 범주를 산업의 한 부분에만 국한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상업 교육의 일반 교육적 성격을 반영하여 기초 지식의 습득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학문적·직업 교육적 성격을 반영하여 기능의 습득, 각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려고 하였고, 사회 및 국민 경제 발전에의 공헌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라고 표현하였다.

가. 학과 편제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학과 신설을 모색하였다.

첫째, 창업 교육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둘째, 상업 교육은 산업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취미,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폭넓은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셋째, 상업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현대 산업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학과 편제에 반영하여 국제화·다양화 추세에 대비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3) "ibid. p.437."

14) "설화란, op. cit., p.31."

넷째,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산업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의 국제적 질적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설치된 4개 학과(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 처리과)외에 상업 디자인과, 관광 경영과, 비서과 등 3개 학과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나. 전문 교과편제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는 82단위 이상으로 하고, 상업계열의 경우 이수 과목은 학과를 불문하고 상업 경제,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반 3개 과목으로 하고, 전문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12단위 이하로 하였다.

한편, 전문 교과의 과목 수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22개 과목에서 제6차에서는 30개 과목으로 늘림으로써 앞서 논술한 고도 산업 사회에의 부응, 학과의 다양한 요구에의 부응 등 교육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7.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

제6차 상업계열 교육과정에서는 상업 자영인 및 상업 관계직 취업자 양성을 위하여 상업 및 경영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능력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상업 교육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7차 상업계열 교육과정은 상업계열 고등학교를 평생 직업 교육기관의 하나로 파악하고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 준비 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 교과의 내용은 교육과정 이수 후 산업 현장에 근무하면서 고등 직업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보다 심화된 전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 내용을 차별화하여 단계적 성취도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상업 교육의 환경은 상업계열 고등학교의 성격 변화, 정보화 인력 수요

증가 및 학생들의 진학률 증가 등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교육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목을 과목 군별로 나누어 학과별 교과목의 전문성을 반영하였다. 상업 교육의 성격은 상업 및 경영 각 분야에 관한 전문 교과 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함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7차 상업계열 교육과정의 목표는 상위 목표와 성취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상위 목표는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며,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두고 있다. 성취 목표는 첫째, 정보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지닌다. 둘째,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서 장래 우수한 직업인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태도를 갖는다. 셋째,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책임 의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제7차 상업계열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화교육 강화를 반영한 학과로 경영과가 경영정보과, 무역과가 통상정보과, 회계과가 회계정보과로 변경되었고, 학과 명칭을 교육 내용으로 특성화시켜 상업 디자인과가 시각 디자인과로 변경되었다.

한편, 정보처리과, 비서과 및 관광경영과는 제6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유통경영과, 사무자동화과가 신설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상업계열 전문교과 편제는 <표 2-1>과 같다.¹⁵⁾

15) "교육과학기술부, op. cit., pp.439-440."

〈표 2-1〉 제7차 전문 교과 편제

과 목				기준 학과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경영대요	경영 정보과
상업 법규	상업 계산 실무	경영 실무	기업 회계	회계 정보과
원가 회계	세무 회계	회계 실무	국제 경영	통상 정보과
무역 영어	국제 상무	자료 처리	전자 계산 실무	정보 처리과
프로그래밍 실무	시각디자인 일반	사진	시각디자인 실무	시각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관광 경영 실무	비서 일반	관광 경영과
비서 실무	사무자동화 일반	사무자동화 실무	문서 실무	비서과
마케팅	광고 일반	유통 관리 일반	유통 정보 실무	사무 자동화과
기타				유통 경영과 기타 학과

8.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계열 명칭이 상업계열에서 상업정보계열로 바뀌었다. 계열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상업정보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교원 자격증 표시 과목도 상업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열 명칭을 상업정보계열로 바꾸었다. 글로벌 시대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면서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는 단지 상업 분야뿐 아니라 정보 통신, 유통, 경영, 컴퓨터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평생 직업 준비 교육기관으로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진로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상업계열의 명칭을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맞도록 상업정보계열로 변경하였다.

상업정보계열 교과 내용 구성의 기본 방향은 상업과 경영·정보 관련 분야의 직업적 소양을 함양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

또는 창업하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전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업적 소양을 함양하고 기초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정보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기준 학과 조정이다. 기준 학과의 경우 현행 9학과에서 개정 32과목으로 바뀌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비서과가 폐과되었고 전자상거래과·멀티미디어과가 신설되었으며, 사무자동화과·정보처리과가 정보처리과로 통합되었다.

둘째, 사회와 산업 변화에 따른 첨단 과목개설 등 전문 과목의 조정이다. 전자상거래 일반, 인터넷 마케팅, 멀티미디어 일반·기획·실무, 웹 프로그래밍, 창업 일반 등의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마케팅과 광고 등의 과목이 통합되었다.

셋째, 과목별 학습 내용에 국제화, 전산처리 및 실습 과정이 반영되었다.

넷째,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교과내용 구성 체계 반영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상업정보계열 전문 교과 편제와 기준학과 편제 개정 내용은 <표 2-2>, <표 2-3>과 같다.¹⁶⁾

<표 2-2> 2007년 개정 상업정보계열 전문 교과 편제

과 목				기준 학과
상업 경제	기업 회계	자료 처리	전자상거래실무	경영 정보과
회계 원리	원가 회계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마케팅	회계 정보과
컴퓨터 일반	세무 회계	프로그래밍 실무	인터넷 쇼핑몰관리	통상 정보과
경영과 법	전산 회계	사무 관리 실무	멀티미디어 일반	정보 처리과
마케팅과 광고	금융과 생활	커뮤니케이션 실무	멀티미디어 기획	사무 자동화과
기업과 경영	국제화와 기업경영	유통 정보 관리	멀티미디어 실무	시각 디자인과
경영정보 시스템	무역 영어	물류 관리	웹 프로그래밍	비서과
기업자원관리(ERP)	전자 무역과 국제상무	전자 상거래 일반	창업 일반	관광 경영과
기타				유통경영과

16) "ibid., pp.441-442."

〈표 2-3〉 상업정보계열 기준 학과 편제 개정 내용¹⁷⁾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경영 정보과	경영 정보과	
회계 정보과	회계 정보과	
통상 정보과	무역 정보과	명칭 변경
정보 처리과	정보 처리과	통합하여 명칭 통일
사무 자동화과		
시각 디자인과	응용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과를 공업계열로 이관하고 응용 디자인과는 기존 학과로만 제시함
비서과		폐지(정보 처리과 등 타 학과와 개별 교과로 분산 반영)
관광 경영과	관광 경영과	존치
유통경영과	유통 경영과	존치
	전자상거래과	신설
	멀티미디어과	신설
9개학과	9개학과	

9. 2009년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12. 23.)

2009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기본 틀 자체를 크게 변화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과목 이수 단위의 증감 운영이 가능하고,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하고 심화학습 기회를 부여하며,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단위를 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과목 이수 단위를 탄력적으로 하였다. 이는 수업 시간 수를 고정하거나 획일화하지 않고 계절과 교과 및 활동의 특성,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기당

17) "ibid., p.24."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 과정이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케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 중점 학교(해당 교과 교육을 특성화하여 특색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학교자율과정의 단위 수 64단위 중 50% 이상을 관련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 단위(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필수 이수 단위)로서 고등학교 3년 동안 204단위를 이수하되, 교과(필수이수단위인 116단위와 학교자율과정 64단위) 180단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구성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각 영역별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¹⁸⁾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영역 및 교과(군)별 단위배당기준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2011, pp. 16-19

〈표 2-4〉 고등학교 단위 배당기준¹⁹⁾

구분	교과영역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영역			
교과 (군)	기초	국어	15 (10)	45 (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 (역사, 도덕 포함)	15 (10)	35			
		과학	15 (10)	(20)			
	체육, 예술	체육	10 (5)	20			
		예술(음악/미술)	10 (5)	(10)			
	생활, 교양	기술, 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12)	16 (12)			
	소계			116(72)		64	
	총 이수단위			204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보통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교과의 전문교과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현행과 같으며 학과별 필수과목 설정과 현장실습 운영도 현행과 같다.²⁰⁾

19) 김순래, “특성화고등학교 상업정보계열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11, pp. 19-20.

20) 김순래, “특성화고등학교 상업정보계열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11, pp. 19-20에서 재인용.

제3장 우리나라 상업 교육의 현황

제1절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의 현황

지난 10년(2002년~2011년)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수와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3-1>, <표 3-2>과 같다.

<표 3-1> 고등학교 학교 수의 변화

연 도	고등학교		
	총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2002	1,955	1,254 (64.1%)	741 (35.9%)
2003	2,031	1,297 (63.8)	734 (36.2)
2004	2,080	1,351 (64.9)	729 (35.1)
2005	2,095	1,382 (65.9)	713 (34.1)
2006	2,144	1,437 (67.0)	707 (33.0)
2007	2,159	1,457 (67.4)	702 (32.6)
2008	2,190	1,493 (68.1)	697 (31.9)
2009	2,225	1,534 (68.9)	691 (31.1)
2010	2,253	1,561 (69.2)	692 (30.8)
2011	2,053	1,554 (75.6)	499 (24.4)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연도별로 재구성

지난 10년 전에 비해 고등학교의 수는 늘어나긴 했으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율과 학교 수는 증가한 반면에, 전문계 고등학교의 비율과 학교 수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도에 학교 수의 급격한 감소의 이유는 그동안 전문계 고등학교의 범위에 포함이 되었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이다.

〈표 3-2〉 고등학교 학생 수의 변화

연 도	고등학교		
	총	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2002	1,795,509	1,220,146 (67.9%)	575,363 (32.1%)
2003	1,766,529	1,224,452 (69.3)	542,077 (30.7)
2004	1,746,560	1,232,010 (70.5)	514,550 (29.5)
2005	1,762,896	1,259,792 (71.4)	503,104 (28.6)
2006	1,775,857	1,281,508 (72.1)	494,349 (27.9)
2007	1,841,374	1,347,363 (73.1)	494,011 (26.9)
2008	1,906,978	1,419,486 (74.4)	487,492 (25.6)
2009	1,965,792	1,484,966 (75.5)	480,826 (24.5)
2010	1,962,356	1,496,227 (76.2)	466,129 (23.8)
2011	1,766,109	1,425,882 (80.7)	340,227 (19.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연도별로 재구성.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09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0년에 약간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다시 약 10%라는 엄청난 수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와 비율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2011년에 학생 수가 20% 이하로 급감한 이유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고등학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지난 10년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파악해보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

연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	미상
2002	231,127	115,103 (49.8)	104,138 (45.1%)	347 (0.1%)	6,155 (2.7%)	5,384 (2.3%)
2003	189,510	109,234 (57.6)	72,212 (38.1)	251 (0.1)	4,305 (2.3)	3,508 (1.9)
2004	182,835	113,944 (62.3)	60,062 (32.9)	354 (0.2)	5,040 (2.7)	3,435 (1.9)
2005	170,259	115,164 (67.6)	47,227 (27.7)	393 (0.2)	4,327 (2.6)	3,148 (1.9)
2006	162,600	111,601 (68.6)	42,151 (25.9)	402 (0.3)	5,348 (3.3)	3,098 (1.9)
2007	158,708	113,487 (71.5)	32,075 (20.2)	435 (0.3)	8,777 (5.5)	3,934 (2.5)
2008	158,408	115,407 (72.8)	30,036 (19.0)	925 (0.6)	9,804 (6.2)	2,236 (1.4)
2009	151,410	111,348 (73.5)	25,297 (16.7)	962 (0.7)	11,410 (7.5)	2,393 (1.6)
2010	156,069	111,041 (71.1)	29,916 (19.2)	865 (0.6)	9,580 (6.1)	4,667 (3.0)
2011	114,690	69,968 (61.0)	29,756 (25.9)	1,142 (0.9)	8,854 (7.7)	5,240 (4.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연도별로 재구성.

()은 연도별 구성비 100%

지난 10년간 졸업자 수는 2002년 231,127명에서 2011년 114,69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서도 취업자 수는 2002년 104,138명에서 2009년 25,297명으로 1/4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29,916명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학자 수는 2002년 49.8%에서 2009년 73.5%까지 크게 늘어나다가 2010년 71.1%를 정점으로 2011년부터 61.0%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2010년을 기점으로 진학률이 낮아지고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제2절 광주·전남지역 상업정보계열 고등학생의 진로

다음은 광주·전남 상업정보계열 고등학생들의 취업과 진학 현황에 관한 것이다. 먼저 광주소재 K여자상업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4>와 같이 취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진학자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추세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3-4> K여자상업고등학교의 진로 현황

졸업연도		2009		2010		2011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졸업자		361	100	335	100	335	100
순수취업자		127	35.1	159	47.5	193	57.6
진학	4년제	131	36.3	85	25.4	?	
	2년제	103	28.5	60	17.9	?	

자료 : 광주 K여자상업고등학교 2012년도 계획서 자료를 재구성함.

<표 3-5>에는 이들 취업자들의 직렬별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업종으로 취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과는 글로벌 비즈니스, 콜마케팅, 디자인 3개과이다)

〈표 3-5〉 광주 K여자상업고등학교 취업자 현황(2011년 기준)

업 종	인 원	업 종	인 원
공기업	2	디자인	23
금융기관	28	콜마케터	28
사무경리	24	해외 인턴십	1
세무회계	5		
기능직	82	계	193명

자료 : 광주 K여자상업고등학교 2012년도 계획서 자료를 재구성함.

K여자상업고등학교는 전체 193명의 취업자 중 82명이 기능직으로 취업(42.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6>과 <표 3-7>은 광주지역 S여자상업고등학교의 2011년 취업자 및 진학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 내용을 재구성하여 나타낸 것이다. S여상의 경우 취업보다는 진학자의 수가 더 많았다.(S여자상업고등학교는 콜마케팅과, 컴퓨터 디자인과, 금융비즈니스과, 보건행정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6〉 S여자상업고등학교의 취업자 현황

업 종	2008	2009	2010	2011
금융업	·	·	·	2
관공서	3	2	·	1
대기업	27	24	55	57
중소기업	55	23	14	18
유통업	8	15	·	10
계약·병원	2	2	·	5
기능·일반	21	3	·	16
기타	22	·	·	·
계	138명	69	69	109

자료 : S여자상업고등학교의 홈페이지 취업현황 부분을 인용.

〈표 3-7〉 S여자상업고등학교의 진학자 현황

	2008	2009	2010	2011
4년제 대학	49	91	72	75
2년제 대학	73	124	121	63
계	122명	215	193	138

자료 : S여자상업고등학교의 홈페이지 취업현황 부분을 인용.

〈표 3-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여자상업고등학교의 진학자는 2009년 215명을 정점으로 2011년 138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의 4개 상업계 고등학교에 편제되어 있는 학과들은 콜 마케팅과, 디자인과, 간호과, 글로벌 비즈니스과, 보건행정과, 회계정보과, 세무행정과, 보건경영과 등이다. 이들 학과의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이며,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8〉 편제학과와 관련 자격증

구분	학과	자격증	비고(공통)
1	콜 마케팅과	텔레마케팅관리사 인터넷 검색사	공통 자격증;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 련 자격증 선택 고급자격증; 토익,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 자상담사, 은행 텔러 자 격증
2	디지털디자인과	웹디자인기능사	
3	보건경영과	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 의약사무관리사	
4	e-비즈니스	인터넷정보검색사	
5	간호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6	세무행정과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금융자산관리사	
7	디지털경영과	정보검색사 전자상거래운용사	
8	정보처리과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먼저, 콜 마케팅과의 학생들은 졸업 후 기업체나 관공서의 콜센터 또는 콜센터 중간 관리자로 취업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텔레마케팅관리사, 웹 콜 마케터, 인터넷검색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디자인과의 학생들은 졸업 후 디자인 회사나 광고 기획사, 방송국으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웹 디자인기능사 등이 있다.

보건 행정과의 학생들은 졸업 후 병원의 원무행정과나 의료정보과로 취업이 가능하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병원 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과의 학생들은 졸업 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사무직이나 세무나 회계 관련 업무 또는 금융 관련 업체 취업이 가능하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위

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웹디자인, 전산회계,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등이 있다.

간호과의 학생들은 졸업 후 병원으로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

세무행정과의 학생들은 졸업 후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나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와 같은 곳으로 취업을 하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전산회계운영사, 전산세무회계, 기업회계, 금융자산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등이 있다.

특히 광주 K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 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과 후 학습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반, 그리고 세무나 회계와 같은 학과를 위한 특기적성 반, 그리고 영어 기초를 쌓기 위한 인문반 등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수요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1, 2교시 체제로 운영하는 곳은 각 시간마다 다른 반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어 여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학교에서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모든 과에 공통으로 취득할 자격증으로 지정하였으며, 선택 고급자격증이라 하여 토익,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은행 텔러와 같은 자격증을 학과공통 고급 자격증이라 지정하고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매년 3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다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격려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²¹⁾

21) 광주 A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 A여성교육계획서 2012” 자료로 재구성

제4장 실 증 분 석

제1절 상업교육의 문제점 분석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광주, 전남(목포) 지역 고등학교 상업계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만족도와 진로지도 인식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진학동기, 직업관, 취업탐색, 진로상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광주지역 상업계고 3개교와 전남지역 상업계고 1개교 3학년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800부 중 632부(79%), 교사용 총 160부 중 60부(37.5%)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2012년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었다.

2. 조사방법과 설문지의 구성

학생용 설문지에서는 상업계 고교 학생들의 진학동기, 전공학습의 만족도, 진로, 직업관과 취업준비의 문제점 등을 알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용 설문지에서 상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과 학생의 교과 수준 및 상업교육 전망, 학생들의 진로지도 시 고충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고교학생들의 진로지도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개선방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3. 상업정보계 고등학교 진학동기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일반계에 진학할 성적이 안 되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253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빠른 취직을 위해서라고 밝힌 응답자가 183명(29.0%), 적성과 소질에 맞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90명(14.2%), 주위의 권유로 진학한 학생이 87명(13.8%), 가정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워서가 19명(3.0%)이었다. 조사 결과 현실적으로 취업을 염두에 두고 상업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많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문항에 있어서 빠른 취직을 위해서(29.0%)와 가정형편상 대학진학이 어려워(3.0%) 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는 항목은 표현만 다를 뿐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문항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부진(40.0%)에 미치지 못하게(32.0%) 나타나 결국은 상업계고등학교 진학은 성적에 의한 부득이한 선택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상업계 고등학교 지원 동기(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적성과 소질에 맞아서	90	14.2
② 가정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워서	19	3.0
③ 빠른 취직을 위해서	183	29.0
④ 진학할 성적이 안 되어서	253	40.0
⑤ 주위의 권유	87	13.8
계	632명	100%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성적 부진이라는 응답이 32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기회가 많아서가 19명(31.7%), 가정형편상 진학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명(6.7%), 적성에 맞춰서가 3명(5.0%), 지인들의 추천 2명(3.3%) 순이었다. 즉, 지원동기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 1, 2순위를 동일한 결과치를 보여 주고 있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지원동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상업계 고등학교 지원 동기(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중학교 성적 부진	32	53.3
② 적성에 맞춰서	3	5.0
③ 취업기회가 많아서	19	31.7
④ 가정형편상 진학이 어려워서	4	6.7
⑤ 선생님, 가족 선후배 등 지인들의 추천	2	3.3
계	60명	100%

4. 상업정보계고 적성

가. 학생들의 적성과의 적합성

다음으로 교육과정이 본인의 적성에 적합한가의 질문에 ‘보통이다’가 308명(48.7%)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이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성적부진으로 상업계로 진학을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 상업계 교육과정과 본인의 적성과의 적합성(학생 응답)

구 분	빈 도	비 율
① 매우 그렇다	36	5.7
② 그렇다	143	22.6
③ 보통이다	308	48.7
④ 그렇지 않다	110	17.4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5	5.5
계	632명	100%

5. 상업정보계열 교과과정

가. 교과 수준과 학생들의 수학능력 간 적정성 여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업계 교과의 수준이 학생들의 수학능력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다’가 27명(45.0%), ‘그저 그렇다’가 16명(26.7%)로 71.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적절하지 않다’가 15명(25.0%), ‘전혀 적절하지 않다’가 2명(3.3%)로 부정적인 응답자는 28.3%로 나타났다.

〈표 4-4〉 상업교과의 수준과 학생들의 수학능력(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매우 적절하다	0	0
② 적절하다	27	45.0
③ 그저 그렇다	16	26.7
④ 적절하지 않다	15	25.0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2	3.3
계	60명	100%

나. 상업 교과 내용과 수준

학생들이 느끼는 교과 내용과 수준은 적절하다 262명(41.5%), 매우 어렵고 분량도 많다 153명(24.2%), 쉽지만 분량이 많다 131명(20.7%), 어렵지만 분량이 적은 편이다 64명(10.1%), 쉽고 분량이 적은 편이다 22명(3.5%)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 결과 교사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교과수준은 적절하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교과 내용 분량이 많다는 단점을 지적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교과내용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효율적인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4-5〉 상업 교과 내용과 수준(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쉽고 분량이 적은 편이다	22	3.5
② 쉽지만 분량이 많다	131	20.7
③ 적절하다	262	41.5
④ 어렵지만 분량이 적은 편이다	64	10.1
⑤ 매우 어렵고 분량도 많다	153	24.2
계	632명	100%

다. 상업정보 교육과정상의 문제점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업정보 교육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취업에 적용 가능한 교과과정상의 문제 지적이 17명(28.3%), 급변하는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내용이 16명(26.7%), 전문 교과의 중요성 인식 부족이 16명(26.7%), 취업 후 실무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과목 11명(18.3%), 교사의 전문성 부족은 0명(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업정보 교육과정이 시급히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표 4-6〉 상업정보 교육과정의 문제점(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취업에 적용 가능한 교과과정 편성 부족	17	28.3
②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뒤처지는 내용이 많다	16	26.7
③ 교과내용이 광범위하여 취업 후 실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11	18.3
④ 전문교과의 중요성 인식 부족	16	26.7
⑤ 교사의 전문성 부족	0	0
계	60명	100%

라. 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학생의 수준 및 의욕저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부지원 부족’ 순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비록 낮은 성적으로 부득이 상업계 고교에 진학하였지만, 기왕 입학한 이상 학생들을 동기부여 시켜서 효율적인 자원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4-7〉 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학생의 수준 및 의욕 저하	44	73.3
② 교육시설 미비	2	3.3
③ 정부지원 부족	8	13.3
④ 교사의 사명감 부족	1	1.7
⑤ 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낙후	5	8.3
계	60명	100%

6. 상업정보계열 교육환경

가.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

학생들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298명(47.2%), 교과목이 너무 많다가 112명(17.7%),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102명(16.1%),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이 76명(12.0%), 실습기자재의 부족 44명(7.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생들은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102명

(16.1%)이나 응답하여 교사들 스스로가 응답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은 0명(0%)과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결과로 살펴보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현장실습 기회 확충 그리고 교사들의 교수법 개선과 과목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4-8〉 상업정보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298	47.2
② 교과목이 너무 많다	112	17.7
③ 실습기자재의 절대부족	44	7.0
④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76	12.0
⑤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102	16.1
계	632명	100%

나. 상업계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교사를 대상으로 상업계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의 비행·탈선에 따른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21명(35.0%), 학생들의 교육 수준 저하에 따른 학습 지도상의 문제점 19명(31.7%)으로 학생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나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시선과 무관심이 13명(21.7%), 산업발달을 따라잡지 못하고 괴리된 교육과정 등 제도상 문제점 5명(8.3%), 실습교육을 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기자재의 부족이 2명(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상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학생들의 교육 수준 저하에 따른 학습 지도 상의 문제점	19	31.7
② 학생들의 비행, 탈선에 따른 생활 지도의 문제점	21	35.0
③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시선과 무관심	13	21.7
④ 산업발달에 따라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 상의 문제점	5	8.3
⑤ 실습 교육을 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기자재의 부족	2	3.3
계	60명	100%

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안(복수응답)

상업계 고교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첫째, 현실성 있는 학과 편성, 둘째, 상업 관련분야에 필요한 직업 기초능력 배양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실무에 적합한 학과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순위 간 차이는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게 나타나 직업 기초능력 배양에 이어 현실성 있는 학과편성과 기초 교양교육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차선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상업계 고등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학생)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실무형 전문 기능 인력 양성	77(12.2%)	132(20.9%)	152(24.1%)
② IT 및 사무자동화 교육	51(8.1)	83(13.1)	109(17.2)
③ 상업 관련분야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배양	140(22.2)	156(24.7)	168(26.6)
④ 현대인에게 필요한 기초 교양교육	151(23.9)	148(23.4)	106(16.8)
⑤ 현실성 있는 학과 편성	211(33.4)	114(18.0)	99(15.7)

7. 진로상담의 문제

가. 진로상담 기회의 충분성

선생님과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부족하다’가 245명(38.8%), ‘보통이다’가 224명(35.4%), ‘충분하다’가 91명(14.4%), ‘매우 부족하다’가 60명(9.5%), ‘매우 충분하다’가 12명(1.9%)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48.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로상담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11〉 선생님과의 진로상담 기회의 충분성 여부(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매우 충분하다	12	1.9
② 충분하다	91	14.4
③ 보통이다	224	35.4
④ 부족하다	245	38.8
⑤ 매우 부족하다	60	9.5
계	632명	100%

나. 상담내용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 주로 상담하는가라는 질문에 첫째,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한다가 444명(70.3%)으로 둘째, 진로보다는 개인적인 내용을 상담한다. 188명(29.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궁금점이 많으므로 교사들이 진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사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상담 내용(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진로보다 개인적인 내용 상담	188	29.7
②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444	70.3
계	632명	100%

다. 상담결과에 대한 생각

학생들의 상담 결과 만족도는 ‘보통이다’ 387명(61.2%), ‘불만족하다’ 115명(18.2%), ‘만족스럽다’ 100명(15.8%), ‘매우 불만족한다’ 22명(3.5%), ‘매우 만족스럽다’ 8명(1.3%)으로 나타났다. 상담 결과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1.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1)의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표 4-13〉 상담 결과에 대한 생각(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매우 만족스럽다	8	1.3
② 만족스럽다	100	15.8
③ 보통이다	387	61.2
④ 불만족한다	115	18.2
⑤ 매우 부족하다	22	3.5
계	632명	100%

다 - 1. 위 설문에서 진로상담이 불만족 하다면 그 이유는?

진로상담에 불만족하는 학생(137명, 21.7%)들의 불만족 이유를 물었더니, 그 첫 번째 이유로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기 때문이 92명(70.2%)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상담 내용이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아서가 29명(22.1%), 다음으로 상담 선생님들의

진로 지식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4명(3.1%)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 교사들의 미래지향성과 전문성이 부족함을 대변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다 진지한 상담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담이 강압적이라는 응답자도 6명(4.6%)이나 있었다.

〈표 4-14〉 진로상담의 불만족 이유(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상담내용이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아서	29	22.1
②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기 때문에	92	70.2
③ 상담 선생님들의 진로 지식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해서	4	3.1
④ 상담이 강압적이어서	6	4.6
계	137명	100%

라.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현재의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는 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취업지도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 취업지도 50 - 80%가 53.3%, 취업지도 80%이상이 35.0%로 두 항목만 합해도 88.3%로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진학지도 보다는 취업지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선생님이 생각하는 취업지도의 비중(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취업지도 80% 이상	21	35.0
② 취업지도 50 - 80%	32	53.3
③ 취업지도 30 - 50%	7	11.7
④ 취업지도 30% 미만	0	0
계	60명	100%

마. 학생 지도 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교사)

교사들의 학생지도 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는 인성(생활)지도가 51명(85.0%)으로 절대적이었다. 다음으로 취업지도 7명(11.6%), 진학지도 1명(1.7%), 특기적성지도 1명(1.7%)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역할 중 그 어떤 항목보다도 인성(생활)교육이 모든 것에 기본이 되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생각되며, 이어서 취업지도가 진학지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위(라)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6〉 학생 지도 시 중점 부분(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취업지도	7	11.6
② 인성(생활지도)	51	85.0
③ 진학지도	1	1.7
④ 특기적성지도	1	1.7
계	60명	100%

바. 현재 학생 지도상의 가장 부족한 부분

교사들이 현재 학생 지도상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생활지도 45명(75.0%), 학습지도 8명(13.3%), 진학지도 4명(6.7%), 취업지도 3명(5.0%)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취업지도는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게 나타난 반면, 생활지도는 현재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생각된다.

〈표 4-17〉 학생 지도 시 부족한 부분(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취업지도	3	5.0
② 학습지도	8	13.3
③ 생활지도	45	75.0
④ 진학지도	4	6.7
계	60명	100%

사. 진로지도(취업, 진학상담 시) 선생님의 가장 큰 어려운 점

교사들의 진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부정적, 소극적 태도가 23명(38.3%), 진로지도에 따른 산학협동 체제 미흡과 지도 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부족이 각각 12명(20.0%)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지도를 할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한 교사가 8명(13.3%), 학교 내의 진로지도 체제 미흡도 5명(8.3%)으로 나타났다.

〈표 4-18〉 진로지도 시 선생님의 어려운 점(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지도 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부족	12	20.0
② 학생들의 부정적, 소극적 태도	23	38.3
③ 학교 내의 진로지도 체제 미흡	5	8.3
④ 진로지도를 할 시간 부족	8	13.3
⑤ 진로지도에 따른 산학협동 체제 미흡	12	20.0
계	60명	100%

8. 취 업

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취업 후 야간 대학 진학’이 187명(2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취업 하겠다’가 157명(24.9%), ‘전공과 상관없이 진학’이 153명(24.2%), ‘아직 정하지 못했다’가 74명(11.7%), 동일계 대학에 진학이 61명(9.7%)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과반수이상(54.4%)이 바로 ‘취업하겠다’라고 답한 반면, 동일계 대학진학(9.7%)과 전공과 상관없이 진학하겠다(24.2%)에 ‘취업 후 야간대학 진학’하겠다는 응답자 29.5%를 합하면 63.4%가 진학을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에 진로에 대해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까지 고려한다면 진학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업계 고교에서조차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표 4-19〉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취업 하겠다	157	24.9
② 동일계 대학에 진학	61	9.7
③ 전공과 상관없이 진학	153	24.2
④ 취업 후 야간 대학 진학	187	29.5
⑤ 아직 정하지 못했다	74	11.7
계	632명	100%

나. 취업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학생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스펙(자격증)이 없다’가 233명(36.9%), ‘채용시험에 합격할 실력을 갖추지 못함’이 169명

(26.7%),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가 134명(21.2%), ‘상업계 고졸출신을 적게 뽑는다’가 57명(9.0%), ‘고졸 취업은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진학을 해야 한다’가 39명(6.2%)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스펙과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6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스펙과 실력 등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아마도 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와 학교가 실업계 학생들의 자존감과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고취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4-20〉 취업 준비 시 문제점(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34	21.2
② 채용시험에 합격할 실력을 갖추지 못함	169	26.7
③ 스펙(자격증)이 없다	233	36.9
④ 상업계 고졸출신을 너무 적게 뽑는다	57	9.0
⑤ 고졸취업은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진학을 해야 한다	39	6.2
계	632명	100%

다. 취업 희망 분야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분야는 일반사무직 320명(50.7%), 제조업 124명(19.6%), 금융업 95명(15.0%), 서비스 76명(12.0%), 유통업 17명(2.7%) 순으로 금융업보다는 일반사무직과 제조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까지도 금융업에서 고졸사원을 뽑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 상업계고등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금융권이었던 것처럼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 등에서 고졸사원을 뽑는 곳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금융기관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1〉 취업 희망 분야(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금융업	95	15.0
② 일반사무직	320	50.7
③ 제조직(생산)	124	19.6
④ 서비스(프랜차이즈 점원, 텔레마케터 등)	76	12.0
⑤ 유통업(마트, 백화점)	17	2.7
계	632명	100%

라. 본인의 희망 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노력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격증 취득’이 270명(42.7%), ‘학교성적 향상’이 127명(20.1%), ‘희망 분야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이 119명(18.8%) 그리고 ‘현장실습’이 82명(13.0%), ‘인터넷 정보 검색’이 34명(5.4%)으로 나타났다. 응답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취업을 하기 위해선 자격증 취득과 학교 성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표 4-22〉 희망 직종 취업을 위해 필요한 노력(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자격증 취득	270	42.7
② 현장실습	82	13.0
③ 희망 분야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	119	18.8
④ 학교성적 향상	127	20.1
⑤ 인터넷 정보검색(면접 대비)	34	5.4
계	632명	100%

마. 상업계 교육내용의 실무 적합성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이 자격증 취득은 물론 실무에의 적용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 같다는 응답이 전체의 72.0%로 교과내용이 실무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상업계 교육내용의 실무 적합성(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자격증 취득에 충분하며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44	22.8
② 개별적 수준차이로 약간의 보충 필요	311	49.2
③ 불충분하며 실무에 많은 보완 필요	121	19.1
④ 매우 불충분하며 전문학원 수강이 반드시 필요	56	8.9
계	632명	100%

바. 불충분한 이유

위 (마) 상업계 교육내용의 실무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 학교교육만으로는 실무에의 적용가능성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전체의 28%(177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상적인 수업만으로는 결코 실무능력배양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음으로는 학생 자신의 노력 부족에 일단의 원인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선생님의 역량부족도 20%정도 응답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4〉 실무 적합성이 불충분한 이유(학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학생 자신의 노력 부족	38	21.5
② 선생님의 역량 부족	35	19.8
③ 자격증 관련 학과목이 없어서	18	10.2
④ 수업 내용만으로는 절대 부족	86	48.5
계	177명	100%

사.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학생, 우선순위)

고졸 채용에 있어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학력 차별의 벽을 최소화하여 한다는 점에 (37.8%)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졸자와 승진·급여 등에서 격차 최소화(31.2%)와 고졸 채용에 대한 양적 확대(21.5%)로 나타났다.

〈표 4-25〉 고졸채용을 위한 개선사항(학생-순위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고졸자에 대한 인식(패러다임)의 변화	80 (12.7%)	55 (8.7%)	100 (15.8%)
② 고졸 채용에 대한 양적 확대	152 (24.1)	130 (20.6)	155 (24.5)
③ 학력차별의 벽 최소화	239 (37.8)	191 (30.2)	117 (18.5)
④ 대졸자와 승진·급여 등의 격차 최소화	135 (21.4)	197 (31.2)	135 (21.4)
⑤ 기업 내 사내대학이나 야간대학 진학 장려	30 (4.7)	60 (9.5)	125 (19.8)

아.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교사, 우선순위)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고졸채용이 대세로 자리 잡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1위 ‘사회 전체적으로 고졸자에 대한 진정한 패러다임의 변화’, 2위 ‘학력차별의 벽 최소화’, 3위 ‘고졸 채용에 대한 양적 확대’, 4위 ‘대졸자와의 승진 급여 등의 격차 최소화’, 5위 ‘기업 내 사내 대학이나 야간대학 진학 장려’ 순으로 조사 되었다. 순위에 있어서 학생들의 응답과 상이한 점은 학생들은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한 반면, 교사들은 인식의 변화라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론된다.

〈표 4-26〉 교사가 생각하는 고졸채용의 개선사항 우선순위(교사; 복수 선택)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사회 전체적으로 고졸자에 대한 진정한 패러다임 변화	51.6	28.7
② 학력차별의 벽 최소화	39	21.7
③ 고졸 채용에 대한 양적 확대	36	20.0
④ 대졸자와 승진·급여 등의 격차 최소화	30.8	17.1
⑤ 기업 내 사내대학이나 야간대학 장려	22.6	12.5

자. 현장 실습의 중점은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표 4-27〉 바람직한 실습의 중점 부분(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학교에서 익힌 전공 지식과 기술의 현장 적용 기회	9	15.0
② 산업체에 대한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기회	20	33.3
③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실습을 보충하는 기회	4	6.7
④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의 탐색 기회	17	28.3
⑤ 실습업체로의 취업 및 필요한 정보 습득 기회	10	16.7
계	60명	100%

교사가 느끼기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장 실습의 중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기회로 필요하다’는 점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의 탐색 기회’에 28.3%가 응답하였으며, ‘실습업체로의 취업 및 필요한 정보 습득 기회 부여’가 16.7%,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익힌 전공지식과 기술의 현장 적용 기회 부여’가 15.0%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차.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취업 시 가산점이 있으므로 취득하도록 권장한다’가 95.0%로 나타나 취업에 자격증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취업에는 자격증이 절대적임을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 학교생활관리와 자기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8〉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교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취업 시 가산점이 있으므로 취득하도록 권장한다.	57	95.0
② 자격증 취득 시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므로 권장한다.	1	1.7
③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0	0
④ 자격증을 취득해도 특별한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2	3.3
계	60명	100%

카. 학생들의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중요도(순위부여)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의 중요도에 순위에 따르면, 1위 ‘컴퓨터 관련 자격증’, 2위 ‘전산회계’, 3위 ‘금융 3종 자격증’, 4위 ‘유통관리사와 무역영어’ 그리고 5위 ‘컴퓨터 그래픽’과 6위 ‘텔레마케팅관리사’ 순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에는 당연히 컴퓨터 관련 능력(전산회계 포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금융 관련 자격증은 지금까지는 고졸자를 금융기관에서 많이 채용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금융기관 등

에서 고졸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도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9〉 학생들의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중요도(교사, 우선순위)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컴퓨터 관련 자격증	50	23.0
② 전산회계	47.3	21.8
③ 금융 3종 자격증	42.3	19.5
④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33.7	15.5
⑤ 컴퓨터 그래픽	22.5	10.4
⑥ 텔레마케팅 관리사	21.2	9.8

제2절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이 분석

1. 교원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

가. 교직경력에 따른 상업교육의 전망 수준

〈 표 4-30〉 교직경력에 따른 상업교육의 전망 수준차이

교직 경력	N	평균	SD	F	p
8년 이하	20	4.10	.852	4.242*	0.019
9년-20년	9	3.22	.833		
21년 이상	31	3.42	.992		

주) $p < 0.05$

교직경력에 따른 상업교육의 비전 수준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직경력에 따라 상업교육의 전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표4-3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직경력이 8년 이하인 교사가 교직경력이 9년-20년인 교사보다 상업교육의 전망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교직경력에 따른 수학능력 인지정도

<표 4-31> 교직경력에 따른 수학능력 인지정도

교직 경력	N	평균	SD	F	p
8년 이하	20	3.35	.813	1.542	0.223
9년-20년	9	3.33	.866		
21년 이상	31	2.94	.964		

교사들이 상업정보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직경력에 따른 수학능력 인지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직경력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능력 인지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다. 교직경력에 따른 산업체 수요 대응정도차이

<표 4-32> 교직경력에 따른 산업체 수요 대응정도 차이

교직 경력	N	평균	SD	F	p
8년 이하	20	3.00	.562	1.399	0.255
9년-20년	9	2.89	.333		
21년 이상	31	2.74	.575		

교사들이 교육에서 산업체 수요에 대응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교직경력에 따른 산업체 수요 대응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직경력에 따라 산업체 수요 대응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라. 상업정보 교육과정 문제점에 따른 상업 교육의 비전 수준차이

〈표 4-33〉 교육과정 문제점에 따른 상업교육의 비전 수준차이

상업정보 교육과정 문제점	N	평균	SD	F	p
취업적용 가능한 교과과정 편성부족	17	3.88	.993	0.869	0.463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	16	3.44	1.153		
실무에 도움 되지 않는 교과내용	11	3.36	.924		
전문교과의 중요성 인식부족	16	3.69	.793		

상업정보 교육과정 문제점에 따른 상업교육의 비전 수준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 문제점에 따른 상업교육의 비전 수준차이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마. 상업정보 교육과정에 문제점에 따른 산업체 수요 대응차이

〈표 4-34〉 상업정보 교육과정 문제점에 따른 산업체 수요 대응차이

상업정보 교육과정 문제점	N	평균	SD	F	p
취업적용 가능한 교과과정 편성부족	17	2.88	.485	2.592*	0.062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	16	2.69	.704		
실무에 도움 되지 않는 교과내용	11	2.64	.505		
전문교과의 중요성 인식부족	16	3.13	.342		

주) $p<0.1$

상업정보 교육과정 문제점에 따른 산업체 수요 대응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업정보 교육과정 문제점에 따른 산업체 수요 대응차이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

2. 학생특성에 따른 인식차이

가. 진학동기에 따른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차이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동기에 따른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적합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따라서 진학 동기가 빠른 취직인 학생이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적합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진학 동기가 성적미달인 학생이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적합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진학 동기가 성적미달인 학생은 적성과 소질인 학생보다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적합도 점수가 낮았고 진학동기가 성적 미달인 학생은 빠른 취직인 학생보다 적합도 점수가 낮았고 진학동기가 빠른 취직인 학생은 주위권유인 학생보다 적합도 점수가 높았다.

〈표 4-35〉 진학동기에 따른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차이

진학동기	N	평균	SD	F	p
적성과 소질	90	3.29	.877	10.154***	0.000
가정형편상	19	3.16	.765		
빠른 취직	183	3.32	.925		
성적미달	253	2.83	.880		
주위권유	87	2.89	.920		

주) $p < 0.1$

나. 진학동기에 따른 교육과정 적합도 차이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동기에 따른 전공학습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따라서 진학 동기가 빠른 취직인 학생이 전공학습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진학 동기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전공학습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진학 동기가 성적미달인 학생은 빠른 취직인 학생보다 전공학습 만족도 점수가 낮았다.

〈표 4-36〉 진학동기에 따른 교육과정 적합도 차이

진학 동기	N	평균	SD	F	p
적성과 소질	90	3.20	.810	4.780***	0.001
가정형편상	19	2.89	.658		
빠른 취직	183	3.21	.834		
성적미달	253	2.93	.794		
주위권유	87	2.93	.774		

주) $p < 0.1$

다. 적성 적합도에 따른 대학 진학 희망도 차이

교과과정 적성 적합도에 따른 대학 진학 희망정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따라서 교과과정 적성 적합도가 높을수록 대학 진학 희망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교과과정 적성 적합도가 보통인 학생이 교과과정 적성 적합도가 높은 학생보다 대학 진학 희망정도가 높았다.

〈표 4-37〉 적성 적합도에 따른 대학 진학 희망도 차이

적성 적합도	N	평균	SD	F	p
낮음	145	3.26	1.021	4.180*	0.016
보통	308	3.24	.892		
높음	179	3.01	.986		

주) $p < 0.05$

제3절 개 선 방 안

1. 상업계고등학교 진학 동기 및 적성

현재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중학교 때의 성적부진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성적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목적 없이 진학하다보니 상업계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은 학습을 하게 된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와 대기업에서 고졸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른바 ‘신(新)고졸시대’로 조기 취업이 점차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적부진이라는 근본적인 이유로 상당수의 학생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업계 고등학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상업계 고등학교 특수성을 살려 전문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둔 취업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입학생 모집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상업계고에서 취업에 목적을 두고 소질과 적성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모집하여 취업특성화고의 목적을 살려 실무중심 교육으로 예비 직장인을 양성하는 학교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스터고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각 학교마다 전문 분야를 중점 육성해 해당 분야의 장인(마이스터)을 키우는 학교다.²²⁾ 조기 취업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만을 경쟁 선발하여 자신이 원하거나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진학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기를 좀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상업계 고등학교

22) 네이버 지식백과 마이스터 고등학교, (<http://www.naver.com>)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만 하는 학생을 경쟁 선발하여 학생 자신이 원하거나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특기를 좀 더 빨리 찾게 하여 취업과 직결되게 해야 할 것이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방법도 변화가 요구된다. 취업을 목적으로만 하는 학생들을 경쟁 선발하는 방법으로 대학입학제도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 면접전형 절차를 추가하여 취업에 대한 진정성을 갖춘 학생만을 선발하는 것이다. 단순히 학교성적 부진이 아닌 뚜렷한 목표의식(전문분야에 대한 취업)을 갖춘 학생만을 선발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도와줌으로서 학생들의 취업기회 보장이라는 상업계 고등학교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2. 교과과정 및 교육환경

조사 결과 학생들이 느끼는 교과수준은 적절하나 학생들의 학습의욕저하와 과도한 교과 분량이 상업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소로 밝혀졌다. 가장먼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불어넣고 적절한 교과 분량을 학생들에게 부여하여 학습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고등학교 입학 후 1학기동안은 여러 가지 실무경험을 미리 접해보므로써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과를 찾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논자가 조사한 광주 S여상의 경우, 콜마케팅과, 컴퓨터디자인과, 금융비즈니스과, 보건행정과 등 4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S여상은 입학 전 신입생에게 자신의 전공을 정하게 하여 반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미리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기에 앞서 신입생에게 각 1개월씩 실무위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2학기부터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데 한결 수월하게 하는 등 학습자 위주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실무 경험을 갖춘 선배나 기업체 실무자와 학생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생 스스로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진로를 결정하게 함으로서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것 또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콜마케팅 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학교 선배나 실무자와 그 진로를 선택한 학생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실무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업무에 대해 멘티(학생)에게 전달하며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서 취업을 앞둔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기회와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업정보교과 교재의 단어들은 대부분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도와 흥미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재 구성을 보다 쉽고 창의적으로 만화를 삽입한다든지, 교과 관련 영상물 제작,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시대에 따른 교육용 소프트웨어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상업정보교과 중에 취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교과과정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거나 실무에의 적응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실무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진주고용지청은 범정부차원의 고졸자 채용지원을 위해 (주)세우, 세일공업(주) 등 4개의 기업과 경남 자동차고, 경남정보고 등 4개 고교를 비롯해 유관기관인 진주, 사천상공회의소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체에서 직원 채용 때 고졸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학교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며, 취업희망자를 파악해 고용센터와 기업에 추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직업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³⁾

다섯째, 기자재 부족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학생들이 수업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실습실별 배정된 교과에 적합한 실습환경과 쾌적한 교실환경 구현 그리고 첨단 기자재를 구축해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진주고용노동지청, 고졸자 취업지원 산학관협약체결 뉴시스 보도자료(2011.11.29) (<http://www.newsis.com>)

마지막으로, 고졸자를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인 산업과의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활성화하여 실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과과정의 일부를 전문대 수준으로 레벨 업 시켜 직무교육의 수준을 높여 고졸자의 잠재역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나아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교육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육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진로상담의 문제

진로상담교사의 적극적인 진로상담 부족으로 인해 진로를 확실히 정해야 하는 산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도에는 1학년 때부터 개인별 취업진로카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취업진로카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변화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방향과 교사의 권유방향을 일치시켜 정확한 진로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진로상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기업과의 협약 등을 통한 유망분야의 특화된 수요와 연계하여 전문화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취업 특성화고로서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 최근 대기업들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대하고 있는 것은 생산현장 기술 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업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에 개교한 21개교 마이스터고는 1,611곳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채용을 약정한 인원이 총 4030명으로 21개교 정원 3,600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의 채용 약정 인원이 졸업생 정원보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21개교 중 66.7%인 14개교의 정원 대비 채용 약정 비율이 100%가 넘는

다는 것이다.²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거울삼아 상업계 고등학교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우수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현장 실무에 바로 배치될 수 있는 특화된 취업전문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계 고등학교 내에 기업협약전문 부서를 의무적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기업체와 유기적이고 장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기업체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해당 기업체에 대한 취업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열어둠으로서 고용불안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상업계 고등학교와 기업체간에 취업계약을 맺고 취업계약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고용창출기업으로 인증하여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서 기업과 상업계 고등학교, 취업희망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취 업

상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기업체에서는 직업기초능력과 전문 고급인력을 갖춘 인재를 원하지만 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업계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전문 자격증 취득과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담임 및 자격증 관련 교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방과 후 자격증 반을 개설하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자격증 취득과 실무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과별, 학년별로 학생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접목시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임으로서 자격증 취득률을 높여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4) 매일경제신문 <http://news.mk.co.kr/> 2012.05.21

둘째, 취업위주의 교육인 상업계고의 학교 특성상 현장실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학협약에 의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고용노동부와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방학을 이용한 인턴제를 도입하여 직장 및 직업체험을 통해 실무를 익히고 취업정보를 습득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 2학년 학생들에게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각 2개월간 네 번의 기회를 주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인턴직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적성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을 통해 졸업 후 실무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장 실무자들 중심으로 직업, 직무특강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캠프를 주기적으로 열어 구직 시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미지메이킹이나 스피치 특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 모의면접을 실시해 실질적인 취업 길잡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잡 새도우(Job Shadow)’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취업 길잡이를 제공한다. 잡새도우는 학생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이해를 돕는 ‘사전학습’, 실제 기업을 방문하거나 직업종사자를 그림자처럼(shadow)따라 다니며 체험하는 ‘현장학습(Job Shadow Day)’, 현장학습에 대한 소감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후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길잡이를 제공한다.²⁵⁾ 우리 상업계 고등교육 또한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직업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명확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상업계 고등학교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상업 전문계 고등학생의 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들의 수요자측면인 업계에서 먼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선도적으로 보여준 ‘고졸 우대채용 → 조직 활력강화’의 선순환은 상업계 전반의 고졸 채용 바람을 확산시키는 커다란 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25) 고재성(2010), “직업체험을 활용한 선진국의 청소년 진로교육” [꿈나래 21, 5월호]

최근의 고졸 취업 활성화에 사회적인 인식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매스컴에 서는 앞 다투어 "고졸 신입사원들은 대졸 신입사원보다 목적의식이 뚜렷해 자기 계발을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며 "이들이 교육을 마치고 현장부서에 배치돼 능력을 보여주면 조직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같이 들어온 대졸 사원들도 굉장히 자극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²⁶⁾

나아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²⁷⁾ 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회적 인 시스템과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 정부의 일자리 창출

최근 대기업이 고졸자에게 개방하고 있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직무를 포함하여 능력만 있으며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와 역할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현재 40~50대가 대부분인 6대 기간(뿌리)산업의 핵심 숙련기능 일자리도 고졸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비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고졸인력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취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6. 공정한 人事제도

기업들이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고졸자가 지원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실제적으로는 대졸에 맞추었던 채용기준을 열린 채용 조건을 제시하여 고졸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직무 특성에 따른 처우(직무급 도입),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 역량 개발에 대한 공정한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일부 금융권에서 실시하는 성장을 위한 직군전환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졸에게도 구체적인 성장경로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서울경제, '기업에 새 활력... 나는 고졸이다.' 2012. 03.12.에서 재인용.

27)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2012. 5. 30.

7. 學歷보다는 學力을 중시하는 풍토로 개선

사회 전반적으로 學歷보다는 學力을 중시하는 풍토로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에서는 이에 부합되는 직무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졸자의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경력 개발 모델로 제시하고 성공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활성화함은 물론 주니어 숙련기술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先취업, 後진학제도를 확대하고, 동시에 대학 전공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내대학이나 야간대학 등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진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진로 및 직업관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문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투자 및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대학진학률 80% 넘어서 가계·사회 교육비용 및 고학력자 미취업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로 소비위축은 물론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는 4년 뒤인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돼 산업계 전체에서 최적의 구직자를 찾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교 진학률이 80%를 넘어서고 전문계고 진학률도 71.1%(2010년)에 달하면서 고용구조마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최종학교의 졸업연령은 물론 노동시장 진입연령도 해마다 높아지는 반면, 기술력을 갖춘 젊은 인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턱없이 부족한데다 생산인구 감소, 대학 진학 증가, 노동시장 진입연령 고령화 등으로 갈 길 바쁜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의 덩어리'에 빠져 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금의 대학 과잉진학은 '고졸자 일자리 열악 --> 대학진학 필수화 --> 대학 과잉 진학 --> 대졸자 하향 취업 --> 고졸자 취업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 이라는 심각한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전문계 고등학교 확대와 고졸채용 확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대적 환경적 문제점에 바탕을 두고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현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광주·전남지역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진학동기 및 적성,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진로상담의 문제, 취업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은 광주지역 3개, 목포지역 1개 상업계고 학생들과 교사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이 분석에서는 교직경력이 8년 이하인 교사가 교직경력이 9년-20년인 교사보다 상업교육의 비전 수준정도가 높았으며, 진학 동기가 빠른 취직인 학생이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적합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진학 동기가 성적미달인 학생이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적합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학 동기가 성적미달인 학생은 적성과 소질인 학생보다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적합도 점수가 낮았고 진학동기가 성적 미달인 학생은 빠른 취직인 학생보다 적합도 점수가 낮았다. 진학동기가 빠른 취직인 학생은 주위권유인 학생보다 적합도 점수가 높았으며, 진학 동기가 빠른 취직인 학생이 전공학습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진학 동기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전공학습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학 동기가 성적미달인 학생은 빠른 취직인 학생보다 전공학습 만족도 점수가 낮았고, 교과과정 적성 적합도가 높을수록 대학 진학 희망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 적성 적합도가 보통인 학생이 교과과정 적성 적합도가 높은 학생보다 대학 진학 희망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상업계고 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성적 부진으로 일반계 진학할 성적이 안 되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40.0% 으로 가장 많았고, 빠른 취직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 순이었다. 현 상업계고 학생들은 성적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학을 하고 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목적 없이 진학하다보니 상업계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은 학습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상업계고의 특수성을 살려 취업특성화고(전문화된 교육)로 전환하여 입학생 모집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교과과정 및 교육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느끼는 교과수준은 적절하지만 학습의욕이 저조하고 교과 내용 분량이 많다는 지적을 하였다. 교재의 구성 난이도가 높아 학생의 수준 및 의욕이 저하되는 가운데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실무 경

힘을 갖춘 선배, 산업체 실무자와 학생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게 함으로서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재 구성을 보다 쉽고 창의적으로 꾸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기자재 확보 등 열악한 상업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진로상담의 문제 조사결과로는 선생님과 진로 상담할 기회가 부족하다가 38.8% 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부정적, 소극적 태도로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필요에 따라 다른 내용의 진로지도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진로상담실과 전문 카운슬러를 배치하여 진로상담은 물론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취업에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진학보다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이 더 많은 54.4%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 저조 현상과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장 실습 기회로 학생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임 및 자격증 관련 교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방과 후 자격증 반을 개설하여 전문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자격증 취득률 제고에 힘써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격증 교재 및 응시료를 절감해 준다거나 무료로 제공하여 자격증 시험 기회여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업체에 대한 현장적응력을 키우는 기회를 보완하여 산학협약에 의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고용노동부와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장 실무자들 중심으로 직업, 직무특강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취업기회보장이라는 상업계 고등학교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이 분석에서는 교직경력이 8년 이하인 교사가 교직경력이 9년-20년인 교사보다 상업교육의 비전 수준정도가 높았으며, 진학 동

기가 빠른 취직인 학생이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적합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진학 동기가 성적미달인 학생이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적합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학 동기가 성적미달인 학생은 적성과 소질인 학생보다 상업 교과교육과정의 적합도 점수가 낮았고 진학동기가 성적 미달인 학생은 빠른 취직인 학생보다 적합도 점수가 낮았고 진학동기가 빠른 취직인 학생은 주위권유인 학생보다 적합도 점수가 높았다. 진학 동기가 빠른 취직인 학생이 전공 학습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진학 동기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전공학습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학 동기가 성적미달인 학생은 빠른 취직인 학생보다 전공학습 만족도 점수가 낮았고, 교과과정 적성 적합도가 높을수록 대학 진학 희망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과정 적성 적합도가 보통인 학생이 교과과정 적성 적합도가 높은 학생보다 대학 진학 희망정도가 높았다.

최근 금융권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고졸자의 취업이 큰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졸채용이 대세로 자리 잡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무엇보다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채용-임금-직무배치-훈련'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력차별의 벽을 최소화하거나 대졸자와의 승진·급여 등의 격차를 줄이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사내대학이나 야간대학 진학 등도 더욱 활성화돼야 '구인난 구직난'의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광주와 전남지역 4개 상업정보계 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4개 학교 중에서도 K교 자료는 다른 3개교에 비해 절대적으로 표본 수가 적었고, 광역시와 지방도시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각 학교별, 도시별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표본의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교육과학부와 교육청 등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과 학생들을 채용할 기업들에 대한 자료까지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결론을 담보해낼 수 있는 부분은 추후의 연구로 남겨둔다.

참고 문헌

- “고졸자 취업지원 산학관협약체결”. 『뉴시스』, 2011. 11. 29.
- 고재성, 『직업체험을 활용한 선진국의 청소년 진로교육』 [꿈나래 21, 5월호]
- “기업에 새 활력... 나는 고졸이다”, 『서울경제신문』, 2012. 03. 12.
- 노직수, 안범진, 『상업정보교육론』. (창원 : 창원대학교출판부, 2009), p.12
- 류지성 외,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CEO Information』, 제855호 (2012. 5. 30), pp1-20.
- 김선진, “고등학교 상업계 학생의 진로의식을 통한 진로지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2008.
- 김순래, “특성화 고등학교 상업정보계열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11.
- 김주현, “상업교육의 발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8.
- 설화란,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현행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10.
- 신현옥, “상업정보계 특성화고등학교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09.
- 양준원, “우리나라 상업정보계열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1.
- 이갑성, “우리나라 상업고등학교 교육의 위기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2006.
- 이일중,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0.
- 장석원, “디지털 경제에서의 상업정보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06.

정진영, “상업정보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업탐구영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8.

조은영, “현재 우리나라의 상업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응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2004.

추경숙, “상업계 고등학교의 육성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8.

최남도, “상업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2011.

광주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http://www.songwon-gc.hs.kr/>)

광주시교육청(<http://www.gen.go.kr/>)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http://www.kjgc-g.hs.kr/>)

교육과학기술부(<http://www.gen.go.kr/>)

네이버(<http://www.naver.com/>)

매일경제신문(<http://news.mk.co.kr/>)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http://www.mpgch.hs.kr/>)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http://www.cgch.org/>)

조선비즈(<http://biz.chosun.com>)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상업계열 분야의 진로 실태조사 설문지(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우리나라 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상업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의 현재 상업교육의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 본 고등학교 입학 동기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어떤 경우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자신이 평소 느낀 대로 솔직하고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업정보교육전공 백 형 미

※ 다음 각 항의 해당란에 V표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남(), 여()
2.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계열 : ① 전문계고등학교 ② 일반계고등학교

1. 귀하가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 ① 적성과 소질이 맞아서
- ② 가정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워서
- ③ 빠른 취직을 위해서
- ④ 진학할 성적이 안 되어서
- ⑤ 주위의 권유

2. 귀하는 지금의 상업 교과교육과정이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귀하가 느끼는 상업전공학습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4. 위 3.의 ④와 ⑤에 답하신 만족도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과내용이 취업과 연관성이 낮아서 ② 적성과 소질이 안 맞아서
 ③ 선생님의 역량부족 ④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 ⑤ 교과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5.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6. 상담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① 진로보다는 개인적인 내용을 상담한다. ②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한다.
7. 상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8. 위 6.에서 진로상담에 불만족하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
 ① 상담내용이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아서 ②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기 때문에
 ③ 상담 선생님들의 진로 지식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해서 ④ 상담이 강압적이어서
9. 졸업 후의 진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① 취업하겠다 ② 동일계 대학에 진학 ③ 전공과 상관없이 진학
 ④ 취업 후 야간 대학 진학 ⑤ 아직 정하지 못했다
10. 향후 상업계 고등학교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밝다 ② 밝다 ③ 보통이다 ④ 어두운 편이다 ⑤ 매우 어둡다

11. 상업 교과 내용과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쉽고 분량이 적은 편이다. ② 쉽지만 분량이 많다 ③ 적절하다
 ④ 어렵지만 분량이 적은 편이다 ⑤ 매우 어렵고 분량도 많다.
12. 귀하가 취업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
- ①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② 채용시험에 합격할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③ 스펙(자격증)이 없다 ④ 상업계 고졸출신을 너무 적게 뽑는다
 ⑤ 고졸취업은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진학을 해야 한다
13. 어떤 분야로 취업하고 싶으신가요? ()
- ① 금융업 ② 일반사무직 ③ 제조직(생산)
 ④ 서비스(프랜차이즈 점원, 텔레마케터 등) ⑤ 유통업(마트, 백화점)
14.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자격증 취득 ② 현장실습 ③ 희망 분야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
 ④ 학교성적 향상 ⑤ 인터넷 정보검색(면접대비)
15. 상업계 교육내용이 필요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후 실무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격증 취득에 충분하며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개별적 수준차이로 약간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불충분하며 실무에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④ 매우 불충분하며 전문 학원 수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16. 불충분하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① 학생 자신의 노력 부족 ② 선생님의 역량부족
 ③ 자격증 관련 학과목이 없어서 ④ 수업내용 만으로는 절대 부족

17.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업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강의 위주의 교육 ② 토론 위주의 교육 ③ 팀별 교육
④ 문제해결 위주의 자기주도 학습 ⑤ 컴퓨터 및 실험 실습을 통한 교육
18. 학생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효율적인 수업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① 강의 위주의 교육 ② 토론 위주의 교육 ③ 팀별 교육
④ 문제해결 위주의 자기주도 학습 ⑤ 컴퓨터 및 실험 실습을 통한 교육
19.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 ①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② 교과목이 너무 많다 ③ 실습기자재의 절대부족
④ 교수 · 학습방법의 개선 ⑤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20. 상업계 고교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골라 주세요.
- ① 실무형 전문 기능 인력 양성 ()
② IT 및 사무자동화 교육 ()
③ 상업 관련분야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배양 ()
④ 현대인에게 필요한 기초 교양교육 ()
⑤ 현실성 있는 학과 편성 ()
21. 상업계 고교에서 진학반을 편성하여 취업과 진학지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찬성 한다 ② 찬성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 한다 ⑤ 매우 반대 한다
22. 대학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3. 상용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 ①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 철폐 ② 꼭 대학을 졸업해야한다는 인식
- ③ 3D업종의 기피와 같은 직업에 관한 편견 ④ 인문계를 선호하는 것에 대한 인식

24.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고졸채용이 대세로 자리 잡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 ① 사회 전체적으로 고졸자에 대한 진정한 패러다임 변화 ()
- ② 고졸 채용에 대한 양적확대 ()
- ③ 학력차별의 벽 최소화 ()
- ④ 대졸자와의 승진·급여 등의 격차 최소화 ()
- ⑤ 기업 내 사내대학이나 야간대학 진학 장려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업계열 분야의 진로 실태조사 설문지(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장래와 교육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 설문지는 우리나라 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상업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어떤 경우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평소 생각하고 느낀 대로 솔직하고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업정보교육전공 백형미

지도교수 이계원

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I. 응답자의 일반사항입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재직하고 계신 학교

① 전문계고등학교 ② 일반계고등학교

3. 교직 경력

① 3년 이하 ② 4년~8년 ③ 9년~15년 ④ 16년~20년 ⑤ 21년 이상

4. 담당 과목 수

① 1과목 ② 2과목 ③ 3과목 ④ 4과목

5. 현재 담당하고 계신 교과목 :

- ① 전문 교과 ② 보통 교과 ③ 기타

II. 상업계 고등학교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1. 학생이 상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중학교 성적 부진 ② 적성에 맞춰서 ③ 취업기회가 많아서
④ 가정형편상 진학이 어려워서 ⑤ 선생님, 가족 선후배 등 지인들의 추천

2. 상업교육의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희망적이다 ② 조금 희망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어둡다 ⑤ 매우 어둡다

3. 상업계 교과 수준이 학생들의 수학능력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적절하지 않다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4. 선생님께서 담당하신 과목의 학생 이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90-100% ② 70-89% ③ 50-69% ④ 30-49% ⑤ 30%미만

5. 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학생의 수준 및 의욕저하 ② 교육시설 미비 ③ 정부지원 부족
④ 교사의 사명감 부족 ⑤ 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낙후

6.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이 인문계 고등학교 중도탈락률에 비해 현저하

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개인의 문제(비행 탈선) ② 가정환경적요인 ③ 학교의 문제(교과과정 등)
- ④ 사회적 문제(실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⑤ 국가의 실업계고등학교 정책의 부재

7.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학생들의 교육 수준 저하에 따른 학습 지도상의 문제점
- ② 학생들의 비행, 탈선에 따른 생활 지도의 문제점
- ③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시선과 무관심
- ④ 산업발달에 따라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상의 문제점
- ⑤ 실무 실습 교육을 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기자재의 부족

Ⅲ.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8. 선생님은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가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업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90-100% ② 70-89% ③ 50-69% ④ 30-49% ⑤ 30% 미만

9. 만약 50% 미만 도달했다면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의 수준미달 ② 교육부의 정책 개선 소홀 ③ 교육시설의 미비
- ④ 교사의 실무 능력 부족 ⑤ 일반인 및 기업체의 인식 부족

10. 전문교과와 보통교과의 이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교과 40%, 보통교과 60% ② 전문교과 45%, 보통교과 55%
- ③ 전문교과 50%, 보통교과 50% ④ 전문교과 55%, 보통교과 45%
- ⑤ 전문교과 60%, 보통교과 40%

11.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주로 활용하는 수업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강의 위주의 교육 ② 토론 위주의 교육 ③ 팀별 교육

- ④ 문제해결 위주의 자기주도 학습 ⑤ 컴퓨터 및 실험 실습을 통한 교육

12-1. 현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진학지도)

- ① 진학지도 80%이상
- ② 진학지도 50-80%
- ③ 진학지도 30-50%
- ④ 진학지도 30%미만

12-2. 현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취업지도)

- ① 취업지도 80%이상
- ② 취업지도 50-80%
- ③ 취업지도 30-50%
- ④ 취업지도 30%미만

13. 상업계 교육과정의 취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며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개별적 수준차이로 약간의 보충이 필요하다
- ③ 불충분하며 실무에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④ 매우 불충분하며 전문 학원 수강이 필요할 것이다

14. 상업정보 교육과정상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취업에 적용 가능한 교과 과정 편성 부족
- ②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뒤처지는 내용이 많다
- ③ 교과내용이 광범위하여 취업 후 실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 ④ 전문교과의 중요성 인식 부족
- ⑤ 교사의 전문성 부족

IV.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15. 학생을 지도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십니까?()
① 취업지도 ② 인성(생활지도) ③ 진학지도 ④ 특기적성지도
16. 현재 학생 지도상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취업지도 ② 학습지도 ③ 생활지도 ④ 진학지도
17. 진로지도(취업, 진학상담)시 선생님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지도 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부족 ② 학생들의 부정적, 소극적인 태도
③ 학교 내의 진로지도 체제 미흡 ④ 진로지도를 할 시간 부족
⑤ 진로지도에 따른 산학협동 체제 미흡
18. 학생들이 현재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산업체의 업무 처리 능력 요구에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19.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장 실습의 중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에서 익힌 전공지식과 기술의 현장 적용 기회
② 산업체에 대한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기회
③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실습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
④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의 탐색 기회
⑤ 실습업체로의 취업 및 필요한 정보 습득 기회
20.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취업 시 가산점이 있으므로 취득하도록 권장 한다.
② 자격증 취득 시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므로 권장 한다.

- ③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 ④ 자격증을 취득해도 특별한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21. 학생들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을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부여한다면?

- ① 금융 3종 자격증 ()
- ②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퓨터 활용, 워드) ()
- ③ 전산회계 ()
- ④ 컴퓨터 그래픽 ()
- ⑤ 텔레마케팅 관리자 ()
- ⑥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

V.발전적 대안에 관한 사항

22.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업교육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 ② 교사와 학생들의 자신감 배양을 위해
- ③ 진로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 ④ 산업구조 및 직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3.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고졸채용이 대세로 자리 잡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 ① 사회 전체적으로 고졸자에 대한 진정한 패러다임 변화 ()
- ② 고졸 채용에 대한 양적확대 ()
- ③ 학력차별의 벽 최소화 ()
- ④ 대졸자와의 승진·급여 등의 격차 최소화 ()
- ⑤ 기업 내 사내대학이나 야간대학 진학 장려 ()

24. 교사 연수 시 다음 중 어떤 부분이 특히 함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공 교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 ② 전공 교과와 관련된 산업체 현장의 실무
- ③ 담당할 수 있는 교과의 확대를 위한 부전공 연수
- ④ 교수방법 및 매체 개발 능력
- ⑤ 교과내용의 재구성 능력
- ⑥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문제

25. 현재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불만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지나친 이론 위주의 내용
- ② 현장 실정을 잘 모르는 강사 선정
- ③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④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내용 부족
- ⑤ 연수시기, 기간에 대한 불만족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상업정보교육	학 번	20098150	과 정	교육학석사
성 명	한글: 백 형 미 한문: 白亨美 영문: Baeg hyeong mi				
주 소					
연락처	010-7173-1612 E-MAIL: tingqu200@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상업정보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Plan for Improving Efficiency of Commercial Information Educa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2 년 7 월 일

저작자 : 백 형 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